

굿네이버스·화순교육청,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생 지원

아동놀이문화 확산 위한 놀이용품 지원

초등학생 445명... 약 5만원 상당 구성

화순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에 위축된 화순 면단위 소규모학교 초등학생에게 놀이용품을 제공한다고 밝히며 7월 23일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화순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겪는

아동의 어려움 중 놀이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23.6%), 친구들과 마음편히 만날 수 없는 것(15.7%), 인터넷 사용 및 게임등으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12.9%)(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착안하여 화순지역 산간 지역 학생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여가, 문화생활에 대

해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놀이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전달식은 면단위 초등학생 445명에게 약 5만원 상당으로 구성된 놀이용품을 전달 했으며, 구성품은 사전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품을 파악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이 아닌 학교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단체 놀이용품도 각 학교별로 제공하였다.

놀이용품 키트를 전달받은 청풍초

3학년 학생은 "생일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완전 신나요" 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바라본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놀거리를 제공해준 선물이다. 놀이활동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특별한 즐거움을 준 것 같아 교사로서도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시는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정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제10회 고흥 청소년 단편영화캠프 성공리에 성료

학생들 스스로 시나리오 쓰고 직접 촬영 진행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고흥교육지원청과 고흥 일원에서 제10회 고흥 청소년 단편영화캠프(이하 캠프)의 운영

했다. 고흥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고흥군청과 동신대학교 방송연예학과가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과 함께 소규모 인원이 영화 제작에 참여하도록 각 학교를 배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데리 액션! 영상 하나로 꿈을 꾸는 고흥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영화에 대한 재능 발견과 영상예술에 대한 창작 의지를 키우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키우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직접 진행하면서 영화가 '보고 즐기는' 대상을 넘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발전해 가는 소중한 자리로 꾸며졌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교육청,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중3·고3 학생 학부모 대상



해남교육지원청은 해남학부모연합회와 함께 지난 22일 해남교육청과 전남학생교육원에서 지역학생·학부모 9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급학교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3·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이 참여하여 진학 설계를 돕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학정보 안내로 시작하여 부모 대상 자녀양육 역량강화 및 내 아이 학습·성격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대상 온라인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 1:1 맞춤형 진학상담으로 마무리

리 되었다.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해남중학교 김지영 학부모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아이의 적성과 학습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꼭 맞는 진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고 보다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여 자녀교육과 성장지원에 전문성을 키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교육지원청 장성모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 및 학업성취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 또한 증진되었으리라 믿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서부교육청, 여름방학 기초학력 집중교실 운영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문해력·수리력에 어려움 겪는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초학력 집중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여름방학 초등 기초학력 집중교실'을 운영한다.

26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초등 기초학력 집중교실'은 올해 도입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일환이다.

입문기 문해력·수리력에 어려움을 겪는 초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집중적인 학습지원을 제공,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20

일까지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초1~2학년 집중지원 대상학교 15개교(동부 6개교·서부 9개교)를 선정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직접 찾아가 주 2~3회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 나선다. 학기 중에는 한글 해독에 초점을 맞춰 학습이 이뤄졌다.

이번 방학 중 집중교실에서는 그림책 읽기·독서 퀴즈·도서관 이용학습 등 학생의 한글 이해와 유창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간담회

청년창업 교육생·선도농업인 등 20여 명 참여



순천대학교는 최근 산학협력단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제1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초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창업 교

간담회에서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농업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밸리 조성 전 선도 농가에서 경영형 실습을 받고있는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청년 농업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정취하였다.

청년창업 교육생들은 영농 창업에 필요한 토지와 온실 건축비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농업정책과 창업 교육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